

##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11. 15.(화) 06:00 ~ 23:00
- 상담건수: 1,223건

## II. 주요의견 내용

### ○ 선곡 호평(2명)

-프로그램명 : 「김미숙의 가정음악」

-방송일시 : 2022. 11. 15.(화) 1FM (09:00-11:00)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매일 오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와 재즈, 에세이까지 소개해주어 다방면에서 상식을 넓힐 수 있어 유익하다. 항상 선곡이 좋은 편이지만 이날따라 서정적이고 아늑한 곡이 많이 소개되어 기분 좋게 청취했다. 늘 따뜻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 ○ 출연자 섭외 제언(2명)

-프로그램명 : 「해 볼만한 아침 M&W」 '이슈토크 W'

-방송일시 : 2022. 11. 15.(화) 2TV (07:00-09:00)

국제 뉴스의 맥락을 짚어보고 그 이면을 살펴보는 코너에 표창원 범죄심리학자가 고정 출연하고 있다. 이날은 군부 쿠데타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안마 사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경찰학자이자 범죄분석가인 표창원 씨가 해당 코너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 프로파일링하는 점이 의아하다. 그때그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는 편이 더 유익할 것 같다.

##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더 라이브' 외 2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223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sup>1)</sup>	계
485	33	-	-	705	1,223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631	434	16	-	-	142	1,223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39	1,084	-	1,223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006	6	120	91	1,223

시청자 의견	문 의
<p><b>【편 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소설」</li> <li>- 후속 방송 요청</li> </ul> <p><b>【보 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뉴스 12」</li> <li>- 보도 호평</li> </ul> <p><b>【시사·교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말 겨루기」</li> <li>- 방송 호평</li> <li>○ 「해 불만한 아침 M&amp;W」</li> <li>- 출연자 섭외 제언</li> </ul> <p><b>【연예·오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요무대」</li> <li>- 진행자 호평</li> </ul> <p><b>【드라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연속극 「내 눈에 콩깍지」</li> <li>- 출연자 섭외 제언</li> </ul> <p><b>【라디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미숙의 가정음악」</li> <li>- 선곡 호평</li> </ul>	<p><b>【방 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시 내고향」</li> <li>- ‘사과’ 연락처 문의 110건</li> <li>○ 「2TV 생생정보」</li> <li>- ‘돼지갈비’ 연락처 문의 53건</li> <li>○ 「아침마당」</li> <li>- ‘방송 정보’ 문의 15건</li> <li>○ 「KBS 뉴스 9」</li> <li>- ‘보도 제언’ 15건</li> <li>○ 「열린음악회」</li> <li>- ‘방청’ 문의 14건</li> </ul> <p><b>【기 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시청」 문의 4건</li> <li>○ 「수신기술」 문의 1건 외 1건</li> </ul> <p><b>【경 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문의 53건</li> <li>○ 「프로그램 구입」 문의 28건</li> <li>○ 「수신료」 문의 21건</li> <li>○ 「전화교환」 문의 14건</li> <li>○ 「주차」 문의 1건 외 3건</li> </ul> <p><b>【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진 문의사항 포함 91건</li> </ul>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 편 성 ]	
<p>후속 방송 요청</p>	<p>○ 「TV소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7. 3. 2.~2018. 8. 31. (월-금) 2TV 방송.</li> <li>- KBS 2TV에서 방송됐던 아침드라마인데, 「과도야 과도야」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제목처럼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드는 드라마였고, 자극적인 전개나 톱스타 없이 가슴 아픈 근대사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주부들에게 인기 많았던 「TV소설」이 폐지되어 아쉽고, 조만간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 보 도 ]	
<p>보도 호평</p>	<p>○ 「KBS 뉴스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1. 15.(화) 1TV (12:00-13:00)</li> <li>- 점심시간을 활용해 12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오전까지 발생한 뉴스를 종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만족스럽다. 진행자의 안정감 있는 진행도 뉴스의 신뢰도를 높인다. 항상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보도해주는 점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공정한 보도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 시사·교양 ]	
<p>방송 호평</p>	<p>○ 「우리말 겨루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1. 14.(월) 1TV (19:40-20:30)</li> <li>- 우리말을 퀴즈로 풀어보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월요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시청한다.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는 동시에 재미도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진행자의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도 집중력을 높인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출연자 섭외 제언	<p>○ 「해 불만한 아침 M&amp;W」 ‘이슈토크 W’(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1. 15.(화) 2TV (07:00-09:00)</li> <li>- 국제 뉴스의 맥락을 짚어보고 그 이면을 살펴보는 코너에 표창원 범죄심리학자가 고정 출연하고 있다. 이날은 군부 쿠데타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이야기 나왔다. 그런데 경찰학자이자 범죄분석가인 표창원 씨가 해당 코너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 프로파일링하는 점이 의아하다. 그때 그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는 편이 더 유익할 것 같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 연예 · 오락 ]	
진행자 호평	<p>○ 「가요무대」 ‘명시, 명곡이 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1. 14.(월) 1TV (22:00-22:55)</li> <li>- 이날은 ‘명시 명곡이 되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준 유명시인의 작품과 순수 문인들의 숨결이 깃든 노래를 즐겨보았다. 아름다운 노랫말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물 흐르듯 유연한 진행이 방송에 품격을 더했다. 오랜 기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좋은 진행을 선보이는 김동건 아나운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 드라마 ]	
출연자 섭외 제언	<p>○ 일일연속극 「내 눈에 콩깍지」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1. 14.(월) 1TV (20:30-21:00)</li> <li>- 당찬 싱글맘 이영이(배누리 분)와 사연 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그런데 주인공을 맡은 백성현 씨와 배누리 씨, 최윤라 씨, 정수환 씨 모두 신인이라 연기력이 떨어져 극에 몰입이 어렵다. 중견 배우들이 이들을 보조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유명한 배우가 섭외되지 않아 아쉽다. 추후 일일연속극 제작 시에는 출연자 섭외에 조금 더 공을 들이길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 라디오 ]	
선곡 호평	<p>○ 「김미숙의 가정음악」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11. 15.(화) 1FM (09:00-11:00)</li> <li>-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매일 오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와 재즈, 에세이까지 소개해주어 다방면에서 상식을 넓힐 수 있어 유익하다. 항상 선곡이 좋은 편이지만 이날따라 서정적이고 아늑한 곡이 많이 소개되어 기분 좋게 청취했다. 늘 따뜻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